금주 법구
계행이 청정하면 즐거움 끝이 없고
파계한 이 마음은 괴롭고 두려웁네.
청정한 계행 속에 번뇌는 멀리 가고
깃드는 이 고요는 열반의 경지일세.
-범계죄보경중경-

현대불교

대표전화 02 737 8881 구독문의 02 737 0099 www.buddhanews.com
THE HYUNDAE BULKYO
불기 2545년(서기 2001년) 6월 6일 수요일(주간) 제 321 호

봉사하는 불교 실상선원 02)745-8503 011)286-2680 서울 성북구 성북동
실상선원 041)734-2680 충남 논산시 연산면 수정리
천축사

뉴스속뉴스 news in news

해인사의 '대불조성'

법보종찰 해인사가 한 시주자의 원력으로 총 높이 43m의 '세계 최대' 청동 석가모니 좌불을 건립한다고 한다.

그러나 이 대불 건립에 대해 해인사 홈페이지 등에는 우려와 반대의 글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고 해인사를 본사로 둔 일부 스님들도 거부감을 나타내고 있다. 이들의 의견은 "수십억원이 들어간다는데 이러한 대불 불사를 왜 해인사에서 하는가", "물량위주의 대형불사는 그만 두고 실제로 필요한 인재불사를 하자"는 걸로 요약된다.

해인사는 팔만대장경만으로도 세계에 알려져 있다. 고유한 전통과 독특한 수행가풍이 면면히 이어진 명찰 중 명찰이므로 굳이 대형불상을 세워 참배객들을 끌 필요가 있을까 한다. 왜냐하면 속리산 법주사와 양양 낙산사, 대구 동화사, 속초 신흥사, 천안 각원사등 대불들은 이미 많이 있기 때문이다. 공주 성곡사가 36m의 미륵불과 37m 와불을 회향한 것이 얼마 전이다.

예전에 '동양 최대' '세계 최대' 라는 수식어를 붙인 불사가 마치 유행처럼 전국적으로 번진 적이 있었다. 이러한 불사들이 불자들의 동참을 유도해 사찰을 정비하는데 일정정도 기여한 바도 크지만 폐해도 적지 않았기에 비판을 받았다. 80년대 후반부터 대형 불사는 이제 지양하고 교육, 포교, 인재양성, 역경, 복지, 전산화 등 실질적으로 한국불교의 내실을 다지고 밝은 미래를 기약할 수 있는 불사로 전환해야 한다는 여론이 설득력을 얻어왔다.

법보종찰이라지만 정작 해인사에는 번듯한 도서관도 없고 교육장도 부족하고 국제회의를 열 만한 세미나실도 없으며 연구단체 하나 만들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또 해인사의 상징인 대장경의 전산화 사업도 지난해로 정부의 지원이 마감되어 계속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많다고 한다.

'부처님을 조성하겠다'는 시주자의 발원이야말로 갈수록

이기주의로 치닫는 이 사회에서 존중받고 널리 선양돼야 한다. 해인사는 그 시주금으로 '수십억원이 드는 세계 최대 청동 대불 한 분을 조성하기' 보다는 '이 사회와 불교계에 크게 기여할 위대한 산(生) 부처님 여러 분이 나오도록' 인재양성 불사로 전환하는 것도 시주자의 뜻을 살리는 일이 될 것이다. 여러모로 위기인 현대 사회에서 인류를 이끌어갈 진정한 선지식이 나오도록 여건을 만드는 불사야말로 해인사 역대 큰 스님들이 남긴 유지를 가장 잘 받드는 일이 아닐까.

이경숙(취재 1부 부장)

희양산 '생태보존지역' 추진

봉암사, 환경부·산림청에 제안 "2km이내 건축물 건립 제한 개발억제 수행환경 보호"

천연기념물 등이 서식하고 있는 사찰주변을 천연보호림과 생태보존지역으로 지정하여 수행환경권을 보존하는 법적 대응방법이 모색된다.

조계종립 특별선원인 문경 봉암사(주지 원타스님)는 이 달 중순 수행환경보존을 위해 사찰주변 천연보호림과 생태보존지역으로 지정해줄 것을 요청하는 제안서를 환경부와 산림청에 제출키로 했다.

봉암사의 이 같은 법적인 대응방법 모색은 전국 대부분의 사찰이 빼어난 자연경관과 천연기념물 등이 서식하는 곳에 위치하고 있어 법적조치를 통해 항구적으로 수행환경권을 수호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귀추가 주목된다.

자연환경보호법에 따르면, 천연보호림이나 생태보존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2km 이내에는 건축물 건립 등 개발을 할 수 없다.

99년부터 2000년까지 2차례 희양산 일대를 현장조사한 녹색연합 서재철 국장은 "현재 문경봉암사 일대는 천연기념물인 까막딱

●봉암사 인근 개발 계획도

따구리, 원앙새, 수달과 희귀식물인 솔나리 등이 서식하고 있으며, 백두대간의 생태계의 보고이자 동식물의 이동통로"라며 "희양산 지역 생태, 천연보호림 지정가능 구역 등 정밀조사를 실시하여 보고서를 발간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봉암사 주지 원타스님은 "20년 동안 일반인의 출입을 통제하며 지켜온 봉암사 인근지역이 광산개발과 관광지개발로 수행환경과 자연환경이 훼손되고 있다"며 "최근에는 선방스님들이 일주일에 2~3차례 조를 짜서 산림보호 감시를 하고 있음에도 하루에 몇 대의 관광차가 희방산에 들어와 산림을 훼손하고 쓰레기 투척, 고성방가를 하고 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현재 봉암사 인근에는 원장스키장 건설 계획과 봉암사 경내지에서 300m 떨어진 규석광산 허가 신청, 1km 떨어진 가은리조트단지 건설계획, 원경광업소의 허가기간 연장 신청으로 인해 사찰환경수행권이 심각하게 침해될 위기에 처해있다.

김원우 기자 wakim@buddhapia.com

☞관련기사 3면

"입대 당시 불자 복무중 개종 많다"

강대남 군법사 조사

입대 당시 불자였던 사병들이 군 생활을 하면서 불교에서 이탈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무종교였던 신병들은 군 생활을 하는 동안 거의모두 개신교에 편입되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군 포교에 대한 다각적이고 종합적인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관련기사3면)

5월 26~27일 이틀간 서울 봉은사에서 조계종 포교원 주최로 열린 '군 포교 지원 및 후원단체 지도자 워크숍'에서 3사관학교 강대남 법사는 최근 3년간 신병교육대 및 모 부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군 포교에 심각한 문제가 누적돼 있다고 지적했다.

조사에 따르면 입대 당시 무종교인을 제외했을 때 33%였던 군불자 수가 군 생활을 거치는 동안 28.5%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으며, 입대 당시 38%나 됐던 무종교인들 중 불교에 편입되는 수는 단 1%에 그칠 뿐 천주교 2%를 제외한 25%가 개신교에 편입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병장이 되어서는 불교에서 이탈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이탈자가 없는 개신교와 대조를 이뤘다.

또 다른 조사결과에 따르면 부대 지휘관의 종교는 사병들의 종교에 별다른 영향을 끼치지 않고 있으나, 군 법당의 유무에 따라 최대 30%가량의 불자수가 좌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명우 기자 mahan@buddhapia.com

"부처님, 참회합니다"

음력 4월 윤달을 맞아 5월 31일 화성 용주사(주지 정락)는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지은 잘못을 참회하고 선근공덕을 쌓기 위한 생전 예수재를 봉행했다. 예수재에 참가한 신도들이 다라니, 지전, 발원문 등이 들어있는 항합소를 머리에 얹고 법당 주위를 돌며 참회기도를 올리고 있다.

경기도 화성=고영배기자

가야산 도로 노선변경 검토

경남도 "공원 밖 우회"

경남도가 조계종과 해인사의 반대를 수용해 가야산 관통도로 노선을 국립공원구역 밖으로 변경하겠다고 밝혔다. 경남도는 5월 30일 "해인사 주변지역의 교통난 해소를 위해 가야산 관통도로를 개설하려 했지만 조계종과 해인사, 환경단체들의 반대가 심하다"며 "공원 구역을 우회하여 도로가 개설되도록 하는 노선 변경안을 검토 중이다"고 설명했다.

가야산환경위원회(위원장 정원스님)는 5월 30일 성명을 발표하고, "경상남도가 추진중인 가야산 관통로가 개설되면 세계문화유산인 팔만대장경 보존에 악영향을 미치고 가야산 국립공원의 생태계도 파괴할 것이다"며 "도로개설이 전면 백지화될 때까지 강력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김원우 기자

"화엄학림 새만금 이전"

갯벌연대 대표 수경 스님

새만금 갯벌연대 공동대표 수경스님은 5월 25일 정부가 새만금 간척사업을 순차적으로 개발하는 계획을 최종 확정한 것과 관련, "실상사 화엄학림을 새만금으로 옮기고, 외국인 환경운동가를 초빙해 환경교육을 실시하는 등 불교적인 방법으로 간척사업 반대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스님은 또 갯벌 전문학자들로 구성된 새만금학회도 설립하겠다고 말했다.

김원우 기자

지역불교 문화기행

윤사월 적멸보궁 3寺순례

6월: 월정사 · 상원사 · 법흥사

윤사월 부처님과의 인연을 두텁게 하며 업장소멸과 공덕쌓기를 발원하는 삼사(三寺) 순례가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길게 뻗은 전나무 숲길로 유명한 월정사에서는 8?9 종합국보 제 48호)과 5월 23일부터 윤사월 한달간만 성보박물관에서 공개하는 부처님 진신사리(眞 수동자 복장사리)를 친견하실 수 있습니다. 또 상원사 적멸보궁에서는 자신의 인행을 점검하고 업장소멸을 발원하는 기도정진의 시간도 마련됩니다.

울창한 숲과 기암괴석이 절묘하게 조화를 이룬 구산선문의 중심도량 사자산 법흥사에서는 선풍진작을 위해 치열하게 구도정진했던 선지식들의 향훈을 느껴보십시오.

◇출 발: 6월 17일(일) 오전 7시 조계사 앞
◇회 비: 4만원(중식제공)
◇접 수 처: 현대불교신문사 (02)722-4162-3
◇입금계좌: 조흥은행 322-04-221460(예금주 선정호)

●주 최 : 현대불교신문사 ●후 원 : (주)한화여행

장 군 죽 비

◇ 불교여성회, 6개월밖에 안 된 나이지만 100수를 앞둔 어르신들에 자비 실천. 자비와 모성은 닮음꼴? (6면)

◇국가는 우리에게 무엇인가? 개인의 자유의지를 압도하는 집단의 권리는 과연 정당한가? (9면)

◇쌍계사 국사암 '산사문화체험'으로 불연 맺기. 최고 형태의 포교는, 부처님처럼 사는 것이 진정한 삶임을 느끼게 하는 것. (11면)

◇놀부방생이 흥부방생으로 바뀌고 있다. 진정한 자비란, 모든 생명의 절대적 평등을 몸으로 실천하는 일. (23면)

since 1991 늘 푸른 정진도량 가산불교문화연구원 원장 지관스님

[redacted]주관 · 가산전문연구위원회

가산도량은 가산법인의 설립이념에 기초하여 인류의 遺産 중에 無上의 價値로 승인한 修行文化를 대중화하고 복된 미래를 전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대주제 : 수행의 가치와 우리의 미래
● 첫번째/우리시대의 知性과 修行의 가치
기조발제/시대지성의 반성과 수행을 통한 전망(원장 지관스님) 외 발표 및 토론(10명)
일시 · 2001년 7월 6일 오후4시~7월 8일 오전8시
진행 · 주제 발표 및 토론 그리고 수행체험
장소 · 해인사 용탑원
참가자격 · 가산학회 및 후원회원 · 삼학원생 · 외침가산정자(6월25일까지 접수마감 :소정양식)

교육사업/불교원전전문학림삼학원
●취지와 목적 /佛敎原典專門學林 三學院은 佛陀의 慧明과 傳燈의 修行 傳統을 장의적으로 계승하는 扶宗樹敎의 金堂.
●교육과정
●불교원전연구과정
『선전강독』 · 한국불교원강독 · 범어불교서연찬
●불교어학연수과정
불교한문강독 · 범어연습초급1 · 티베트어연습
●기초학습과정 · 불교근본교설의 이해
○삼학원생 원서교부중
○일반수강생은 수시 접수 가능

학술 · 교화 · 출판사업
■ 가산학회편/『伽山學報』 창간호~제8호 ,제9호간
■『한국고승비문총서』총간/『校勘譯註歷代高僧碑文』 신라편 /고려편1/고려편2/고려편3 /고려편4/조선편1
· 『한국고승비문총집』(조선조 · 근현대)
■ 이지관저/『韓國佛敎所依經典硏究』 · 『南北傳六部律藏比較硏究』 · 『伽倻山海印寺誌』 · 『信行日鑑』 · 『要經序說』 · 『四集私記』 · 『曹溪宗史』
■ 가산수행론서 제1권/임승택 역주 『빠띠삼비다막가』
■ 세미나및학술자료집/『韓國佛敎文化思想史』(상 · 하) · 『세계속의동북아의고학체계와수행체계』 · 『세계정신을 탐험한 위대한 한국인 예토』 · 『지운대율사』자료집

불교대백과사전 편찬사업 가산불교대사림 본격출간
"2500년 불교사에 있어서 세계최대 표제어를 수록한 불교대백과사전!!"
"1700년 한국불교사에 있어서 일반불교술어 및 한국불교술어의 정적인 집결집!!"
"세계불교학의 연구성과를 종합적으로 반영한 한국불교학 및 인문학연구전통의 새로운 지평!!"
● 한국불교 중흥의 초석이 될 가산불교대사림 회원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 불교대백과사전 편찬사업을 후원하거나, 구입을 원하시는 분들은 '伽山佛敎大辭林 회원'으로서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 전체 1 · 2 · 3권 출간, 4권 근간 · 전15권 년차 속간 예정
· 전권금액 2,800,000원 / 예약회원은 20%할인하여 1,750,000원(우편료포함)입니다.
· 예약회원은 가산불교대사림 전권구입을 희망하시는 분으로 위의 금액을 3개월~60개월로 분할입금하시면 됩니다.

이래사진은 윤범상님의 "전적남의 기쁨"중 일부분입니다.